

생애구술을 통해 본 중국 할빈 지역 조선족의 주거의 의미

: 주거유형 경험과 경로접근을 중심으로

Meaning of Housing through Oral Life History of Korean Chineses in Harbin, China
: Focused on experiences of housing structure type and pathway approach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홍형욱*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Hong, Hyung-Ock

<Abstract>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explore the meaning of housing among Korean Chinese in Harbin, China.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housing was examined by using the pathway approach.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dministered the in-depth interview on the oral history of an individual life, and the 5 elderly persons in their 60s and 70s participated in the individualized interviews that were conducted from May 28 to 31 in 2010.

The main findings of meaning of housing were as follows;

1. Similarly to the meaning of housing in 1970s and 1980s in Korea, house was viewed as both a shelter fo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and a place for their comfort.
2. Prior to multi-story residences, Harbin had only 3 different forms of single-story houses available; Chinese style with Kang((炕) and soil room(地室), Korean style with 'Ondol', and Russian style with open floor and Pechka, The promotion at work enabled participants to move to multi-story residences, their moving time varied from 1970 to 1991, and the residential moving determined their current housing status.
3. Multi-story residences were available around 1970s, floor-heating system was introduced from 1990s, and high-rise apartments were built from 1998. Korean Chinese(朝鮮族) weren't satisfied with the spatial composition of individual units embedded into the Chinese culture, especially, entrance, kitchen, bathroom and veranda.
4. Based on assimilation through socialism, adaptation to socialist society and capitalist acculturation, the lifestyles of the interviewe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 capitalist-proactive(Ms. KS), socialist-pragmatic(Ms. J), socialist-inducive(Ms. KY), family centered-conservative(Ms. L), and socialist-adaptive(Ms. P).

This study implies that housing-related services for Korean Chinese are necessarily provided so as to embrace their life style and cultural identity in housing design, and further studies need to be explored.

▲주요어(Key Words) :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조선족(Korean Chinese), 평집(single-story house), 층집(multi-story house), 정체성(identity), 생활양식(life style), 경로접근(pathway approach), 주거의 의미(meaning of housing)

* 주저자 · 교신저자 : 홍형욱 (E-mail : hong1215@khu.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생애사는 개인과 가족성원의 삶과 사회단위로서의 가족생활이 시간과 역사의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맥락적, 과정적, 역동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주거생활 변화에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한편, 생애사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삶의 과정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개인적 서술이지만 몇 가지 인식론적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는, 개인의 삶이 대표성을 지니는가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의 삶은 사회적 과정이나 구조에 의해 구성되지만, 동시에 그 구조들을 개인이 만든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해결된다. 둘째는 생애사의 주관성이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역사적 자료는 시작부터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통해 해결된다(윤택림, 2004)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구술생애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 연구 성과에 대해 철학적 배경의 결여, 불명확한 인식론적 입장, 피상적인 심층면접에 그친 부정확한 자료수집,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한 함의 부재 등의 문제점(천혜정, 2004)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의 목표가 표본을 통해 모집단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조사된 것(being searched world)'에 대해서만 설명한다는 실증주의의 한계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인식론적 입장을 분명히 한 질적 연구의 유용성(Clapham, 2009)이 강조되고 있다.

구술생애사에 대한 질적 접근은 개인과 가족이 시공간을 통해 살아가는 일대기를 거치면서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주거경험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므로 개인의 삶을 사회사적 변화와 연동하여 통찰해내지 못한다면 사건의 나열에 그칠 뿐 이를 통해 주거사적 안목을 넓히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극히 조심스러운 연구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애사적 변화를 들여다본다면 개인적으로 겪어 온 삶의 궤적과 주거의 사회사적 변화를 엮어 낼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심층면접으로 얻은 질적 연구 자료는 그 고유성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질적 자료를 해석할 때 연구자는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가질수록 좋으며, 이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천혜정, 2004)하다.

주거이론 중에서 경로접근(pathway approach)은 개인과 가구의 주거경험이 주거에 대한 관념과 태도, 의미를 형성한다(Clapham, 2005)고 본다. 경로접근은 주관주의적이며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실체(realty)가 만들어진다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전통 안에 속하는데(Clapham, 2009), 주거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가 점점 증가(Clapham, 2005)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로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연구의 목표는 개인적인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목표와 주거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접근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생애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정체성(identity)과 그에 따라 다르게 영위되는 생활양식(lifestyle)을 핵심개념으로 다루고 있다(Clapham, 2005). 결국, 개인과 가구는 자아존중과 긍정적인 정체성의 성취 과정을 통해 생활양식이 확립되고 그러한 가운데 주거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거의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과 생활양식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 때 주거의 경로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체성 형성 요소는 결혼과 더불어 구성되는 가족구조, 자녀, 이혼, 그리고 직업 등(Clapham, 2005)인데 이러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히고자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인식론적 입장이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주거의 의미는 심리적 측면, 철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소비경제적 측면(주거학연구회, 2005)에서 발현된다. 심리적 측면에서 주거의 의미를 넓혀진 자아로서 인식하는 경우와 철학적 측면에서 실존의 근거로서 인식하는 경우는 주로 자아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거나 상징하는 것, 소비경제적 측면에서 소비하는 물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수단으로 주거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주로 생활양식과 연결되어 있지만 두 가지는 불가분의 측면도 있다. 또한, 주거의 의미는 시대변화와 함께 달라진다. 즉, 전근대사회에서는 신분의 상징, 가문의 상징으로서 주거가 그 역할을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주택이 내구소비재의 하나로 인식되며 투자수단으로서의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방향으로 주거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애과정을 겪으면서 정체성의 요소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할 것이지만, 생애구술자들의 정체성 형성요소의 변화과정에 따라 현재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경로접근을 이용한 연구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를 살아온 60-70대 4명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주거의 의미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홍형욱 외, 2009a; 홍형욱 외, 2009b), 격변기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를 거치면서 개인마다 주거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경로접근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생활양식으로 집약되며, 이러한 것이 각 개인과 가족의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주거의 의미를 연구한다면, 중국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온 정체성의 형성요소들이 그들의 주거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어떠한 생활양식으

로 발현되었는지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19세기 후반부터 일제 강점기 말까지 이주한 이주 1세대와 그 후손들이 동북3성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인으로서 중국내 여러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지만 자치주, 자치현과 같은 집거구를 형성하고 있는가하면 산거지구에서도 민족자치향과 자치촌을 형성하여 조선족 특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김종영, 1996). 그러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도시지역에서는 섞여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1970년대 이후 층집 위주로 직장에서 배급되던 집은 중국인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을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또한, 1983년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고, 1995년경부터 직장단위 배급이 중지되고 시장경제의 도입과 중국식 사회주의가 병존하는 사회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조선족들은 어떻게 주거조절을 해 나왔고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력의 성장과 더불어 해외동포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할빈지역 해외동포의 주거생활에 본국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 동북3성 중 흑룡강성 할빈 지역에서 근현대를 보낸 조선족의 생애구술을 통해 그들의 주거실태, 주거만족불만족, 주거의 경로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조선족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문화의 지속성과 변화, 한족과의 동화정도를 파악하며, 해외거주 동포의 주거문화의 본질과 변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 거주 동포를 위한 주거단지개발, 주택계획, 실내장식, 기존주거를 개조할 때 그들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기초할 수 있도록 주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할빈지역 구술자의 생애사에 나타난 주거유형 경험과 주거의 의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할빈지역 구술자의 주거의 경로에서 나타난 정체성 형성요소와 주거행동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중국의 도시주택 정책의 전개2)

중국은 1949년 해방 후부터 30년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복지화 주택 정책을 폈으나, 개혁개방 이후 도시규모의 확장과 인구 증가로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은 복지화에서 상품화로 변화되어갔다.

1949년~ 1978까지 중국정부는 개인소유의 주택을 몰수하고 새 주택을 건설하여 무산계급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점점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오랜 기간 개별가구 소비지출의 2-3% 정도의 저임대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개별가구는 주택에 투자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부공급주택의 60%는 직장에서 공급하였는데 직장의 경제 상태에 따라 주택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국유기업과 대형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간에 불균형이 나타났고, 기업은 직원 주택의 공급과 유지, 보수 때문에 발전과 경쟁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 초 주택부족이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와 직장에서 주택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 됨으로써 주택상품화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60여개 도시로 주택의 전가(全價)판매를 실시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자 지방정부와 직장, 개인이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개인들은 집을 구입하기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분배를 선호하여 구입은 저조하였다.

1983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고 1988년에 이르자 중앙과 지방의 주택개혁 계획이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1989년부터 10년간 고속 경제성장으로 탄력을 받게 되어 1992년에는 주택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119% 성장하는 등 도시민의 구매력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면서 임대료를 높이고 주택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등 주택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주택상품화는 가속화되었다.

1994년에는 중국 주택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1995년부터 5년간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서민주택의 분업을 계획하였고 1997년 말까지 5만가구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였다.

1998년부터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주택시장이 강력한 소비시장으로 주목을 받는데,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1) 동북 3성 중 조선족 최대 거주지인 길림성 연변지역 연길시의 경우도 조선족은 56.06%, 한족이 38.83%,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최금화, 2002).

2) 도시주택정책의 전개과정(김광호, 2006)이 객관적 사회변화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나 구술자가 경험한 주택정책 전환시점과 문헌을 통한 시점이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개인의 거주지와 상황에 따라 수용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술자의 표현과 이해를 존중하여 결과해석에서는 연도와 시점을 구술자의 표현대로 적었다.

개발하여 주택산업과 주택시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주택의 실물분배는 완전히 중단되고 완전한 상품으로 전환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주택의 공급자에서 주택시장의 관리자와 감독자로 전환되었다.

2.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주거공간에 관한 선행연구

1) 요녕성의 조선족 주거

동북 3성 중 제일 아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녕성에 조선족의 이주역사(김종영, 2000)는 매우 오래전부터이다. 이 지역은 과거 고구려, 발해 영토의 일부였고 그 후에도 원, 명, 청나라 시대에 많은 조선족들이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에 거주하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고 일부는 동화되었으며 극히 일부만 조선족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족의 실질적 이주자는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시대 까지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인데 약 75% 정도가 평안도 출신이다.

요녕성은 만주족이 역사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곳이지만 한족, 조선족과 섞여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상호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 요녕성의 조선족 민가는 정지와 방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평안도 민가와 관련성을 갖는 반면, 길림성 조선족의 민가는 정지와 온돌방이 붙어 정지가 집안의 중심공간이 되며 함경도 민가와 관련성이 깊다. 공간사용방식에서 요녕성 조선족 민가의 중심공간은 정지 옆의 아랫방 혹은 큰 구들이며, 이 방에 집안의 어른이 생활하고, 부엌은 정지, 베케테 등으로 분리 운다(김성우 외, 2001).

오랜 기간 동안 섞여 살게 되면서 장시간에 걸쳐 동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요녕성의 만주족, 한족, 조선족의 상호영향을 살펴 본 연구(김성우 외, 2001)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면구성에서 볼 때 만주족은 중앙이 부엌이고, 좌우에 ㄷ자로 칸이 시설된 3칸 형식이 기본인데, 한족은 중앙칸이 부엌 겸 집안의 중심공간이며 좌우가 침실로 사용되는 3칸 형식이다. 조선족 민가는 한쪽에 부엌이 있고, 방이 연속으로 이어진 3칸 형식이다. 요녕성 조선족 민가에서 나타나는 한족 민가의 영향은 부엌의 위치가 한쪽에서 중앙으로 옮겨지고 구들의 크기가 축소되는 현상이 더러 나타나고 있다. 칸의 형식은 조선족 민가의 칸이 가장 넓고 45-55cm 정도로 더 낫다. 조선식 구들은 올라가서 좌식으로 생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난방하기 위해 보통 아궁이 수도 3개 정도로 더 많다. 생활관습 면에서 조선족의 실 명칭은 다른 민족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선족도 실내통로를 지실(地室)로 부르는 것은 본래 있지 않았던 공간에 대한 명칭이어서 한족 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위계는 다른데, 조선족은 중앙의 온돌방이 높은 위계를 갖지만, 만주족은 서쪽이 위계가 높고, 한족은 방이 아닌 당옥이 위계가 높는데 이러한 것은

기본평면이 다르고 인습적인 면이 있어서 고유하며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요녕성 도시단독주택의 평면(김종영, 2000)은 1970년대까지는 정지중심 형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복도형, 1990년대에 거실중심 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족식의 칸[炕] 중심의 난방에서 취사연료의 변화와 온수보일러에 의해 라디에터로 바뀌고, 온수바닥 난방이 보급되면서 평면구성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정지중심 형이나 복도형은 공간구성상 한족의 것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칸방에 비닐장판을 깔아 신을 벗고 생활을 한다거나 띠방 등을 개발한 것은 좌식생활을 추구한 한 단면이다. 1990년대 도시주택에 온수바닥 난방 방식과 거실[客廳] 중심형의 공간구성이 도입되고 더욱 자유로운 좌식생활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길림성의 조선족 주거

길림성은 동북 3성 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2000년 제 5차 인구조사(4)에 의하면, 전체 조선족 192.38만 명 중 43.77%(84.21만명)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어 조선족이 가장 많다.

길림성 조선족의 평집(단층집, 단독주택)과 층집(아파트)의 변천을 보면, 一자형 남향으로 벽두께가 50cm 정도로 중국식 칸[쪽구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조선식 전통구들로 바꾸어 살고 있다(5).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형의 田자형으로 정지에서 신발을 벗고 구들방으로 올라서게 되어 있으며 3개의 방은 미서기 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회사단위로 집을 공급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으면 집을 소유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가족수에 따라 36평, 42평, 54평 등 평형을 다르게 배급(이영심 외, 2007)받는다.

길림성의 층집은 1970년대 말부터 직장단위로 배급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부터는 75%정도가 층집에 거주하여 일반적인 주택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철근콘크리트 조 벽돌외벽의 층집은 외벽이 두껍고 남향이 일반적이며, 8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7층 이내가 일반적이다. 초기에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칸이 설치되었던 것이 라디에터를 거쳐 최근에는 온수바닥 난방이 보급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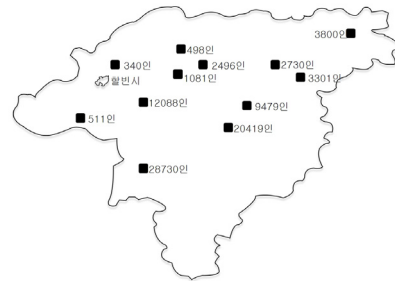
3) 거실은 커팅 혹은 거실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4) 1996년도 당시 중국 전체 조선족 192만 명 중 동북 3성에 186만 여명(길림성에 118만명, 흑룡강성에 45만명, 요녕성에 23만명으로 추산)이 거주하고 있었다(김종영 외, 1996).

5) 연변에서는 한족이 조선족의 민가에 들어와 살며 중국식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들의 일부를 철거하여 칸과 띠방(地房)을 만들고 정지를 부엌과 방으로 구획(최금화, 2002)한다. 그 이유는 주로 신을 신고 입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칸에도 걸터앉으며, 기름을 이용하여 후라이팬에 볶는 요리방법 때문에 기름이 튀고 천장까지 그을리기 때문에 조선족의 함경도식 정지간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중국내 동북3성의 위치



<그림 2> 흑룡강성 할빈지역의 조선족 분포
(할빈시내 거주 조선족:46,802인)

점점 커지고 최근에는 운동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 경비실 등의 보안강화 등이 특징이다. 중국 층집 공급의 특징은 내장 마감 및 설비를 제외한 채로 공급한다는 사실이다. 그 목적은 다양한 경제적 수준과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영심 외, 2007)이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이 우세한 지역이므로 층집 공급초기에는 조선족과 한족을 구분하여 설계(최급화, 2002)하였고, 한족은 부분 온돌을, 조선족은 통구들(전면온돌)을 적용하였다. 60-70년대가 되면서 한족은 부분 구들에 실과 실 사이를 벽으로 막는 형식을 취하고, 조선족은 전면 온돌에 칸과 칸을 막더라도 미서기 문을 설치하여 서로 통합이 가능한 평면 형식을 적용하였다. 1980년대 들어 개별 온돌과 중앙집중식 라지에터 난방이 도입되어 혼용되면서 한족과 조선족에 같은 평면이 공급되고, 1990년대 들어 층집에 온돌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현지인을 위해 공급되는 층집에 대한 길림성 조선족의 평가(이영심 외, 2007)를 보면, 냄새나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는 것을 선호하고, 중국인들이 한가지씩 조리해 내거나 밥과 채를 한 그릇에 담아 간편하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부엌을 좁게 만드는 것에 불만이 있었으며, 조선 사람은 정지가 커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엌까지 바닥 난방이 되어 차게 음식을 보관할 곳이 없는 것과 작업대와 수납장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였다.

3) 흑룡강성의 조선족 주거

중국의 동북 3성 중 가장 북쪽에 있으며,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

동북 3성의 주거공간구성을 비교한 연구(김종영 외, 1996)에 의하면,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요녕성 일대와 연변을 제외한 길림성 및 흑룡강성 일대의 주거 형이 다르다. 첫째, 조선족의 주거 형은 출신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록 이문화권에 이주했다 하더라도 생활양식까지 전부 바뀌지는 않고 상당부분 유지된다. 둘째, 함경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연변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공간구성이 크게 다르다. 셋째, 각 지역 모두 근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지역성의 틀 속에서 일부 개조하는 경향과 지역성을 탈피하여 소위 현대식 주거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전기와 가스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간구성이 달라지고, 한국의 온수바닥 난방 방식으로 인해 소위 LDK형 주거 공간 구조가 보급되고 있다.

중국의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는데 2000년 제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한면적의 7배에 달하는 흑룡강성 인구는 3,600만 명이고 그 중 할빈[哈爾濱]시 지역 인구는 971만 명이며, 흑룡강성 조선족 인구는 38만 8458명으로 나타나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할빈은 러시아가 개발한 도시로서 러시아식 건물이 아직도 많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족은 2010년 현재 할빈 8개의 시할 구, 3개의 현 급 시, 7개의 현에 13만8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도심 7개구 거주자는 4만 5천 명 정도라고 하였다(<그림2> (2010년5월 할빈시 조선민족사업추진회 자료).

할빈에 조선족 유입은 1898년 러시아 중장철도 건설시 조선인 변역관이 온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며, 1900년 들어 유입되기 시작하다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항일 투쟁인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930년대에 대대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함경도 사람들이 길림성에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고, 요녕성은 평안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데 비해 흑룡강성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 남성들이 주로 많이 유입되었다. 흑룡강성 조선족의 특징은 출신도별로 마을을 세워 전라도 마을, 경상도 마을, 충청도 마을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특징을 지금도 많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말씨도 출신지역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 주거형편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흑룡강성 농촌마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도 아파트가 많지 않고 벽돌집과 기와집이 많다. 농촌도 90년 대 부터는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농촌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한국으로 돈 벌러 나가고 노인들이 많으므로 부인들이 아파트를 편리하다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007년 흑룡강성의 소수민족을 위한 새농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할빈시 향방구에 2008-10년까지 완공 목표로 조선족

아파트 단지 ‘高麗風情鎮’ 5,000세대를 건축할 계획⁶⁾이 세워져 있었다. 구술자들의 증언에서도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은 차별보다는 우대에 가깝다고 하였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개요

연구방법은 할빈 거주 조선족 5인의 생애에 대해 심층면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 진행하며, 생애사를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 형성요소의 변화와 그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생활양식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경로접근(Clapham, 2005)을 이용한다. 또한, 개인과 가족은 자신의 주거조건을 문화규범과 비교하면서 주거규범을 형성해 나가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주거만족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조절을 해나가며, 주거조정 및 주거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행동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틀과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거조절이론(Morris & Winter, 1975)의 인식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자한다.

구술자들은 각기 1932년생(78세)부터 1941년생(69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가족생활주기를 거쳤고, 가족, 교육, 직장 등 개인의 정체성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동적인 근현대사의 영향을 받아 생활양식을 구축해 나왔다. 이러한 것은 결국 주거의 의미에 관한 총체적 분석이 가능한 것이 경로접근의 가치이고, 구술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규명을 통해 주거의 의미를 분석해야하는(Clapham, 2005) 의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생애구술을 받아 적는 가운데 구술자 개인과 가족에 관한 사항(직업, 소득, 학력, 가족, 결혼상태 등), 한국과의 교류정도 등 현재의 실태와, 그동안 살아온 집의 종류, 크기, 재료, 평면, 공간명칭, 살아온 각각의 주택에서의 가족상황과 공간사용, 당시의 가격, 각 주택 취득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 현재 주택의 구매가격과 실내장식비용, 현재의 매매가, 중국식으로 동화된 점, 중국집에 대한 불만족한 점, 개조하고 싶은 곳, 앞으로 살고 싶은 지역과 집의 특징과 유형, 집의 의미를 구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구술자의 선정기준은 (1)출신지역 (2)교육수준과 직업 (3)주로 거주한 주택의 유형 및 소유과정 (4)층집(아파트) 거주 시작 시기 (5)한국과의 교류정도 (6)경제적 계층(서민층, 중간층, 부유층)이다.

(1) 출신지역은 주로 농촌지역 출신자와 도시지역 출신자 등 다양한 출신지역을 포괄하였다. 이는 평집 혹은 단층집 중

에서도 조선집, 중국집, 러시아집 등의 평집에 대한 경험을 알 수 있고, 층집에의 거주시기가 각기 달라 그간의 경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교육수준⁷⁾은 취업여부와 종사한 직업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1995년도까지는 직장에서 집을 분배하였으며, 직장에서의 직위, 식구 수에 따라 배급규모와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더러는 일을 잘하면 포상으로 집을 배급해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이나 직장이나 직종에 대한 편견, 주거생활의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 주거유형과 소유과정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대체로 신축개조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주거유형을 지었는지 알 수 있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직장에서 분배하는 집이 저렴하지만 임대료를 내는 형태였다가 95년경부터 직장주택배급이 중지되고 매매가 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투자수단으로서의 주택구매의식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는지 알 수 있다.

(4) 층집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을 배급하기 위해 대량신축을 하기 위한 주거유형으로 발달했다. 60년대만 해도 기존에 있던 러시아집이나 중국집이 배급되었으나 70년대부터는 층집이 주로 배급되었고, 건축연대에 따라 달라지는 난방방식과 시설설비 및 바닥 재료에 대해 알 수 있다. 1980년대부터는 정지가 부업으로 바뀌는 입식화 과정을 거치고, 1990년대부터 온수온돌로 바닥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LDK형이 많아졌다. 8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7층 이하로 지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아파트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거조절 과정을 알 수 있다.

(5) 한국과의 교류정도 또한 중요한 기준이다. 1983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조선족들은 한국 왕래를 많이 하였는데 80년대에는 용담, 녹용, 사향, 우황청심환, 편자황 등 주요 약장사를 하여 경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90년 초부터는 중국과 한국의 인건비 격차가 커져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많이 하였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대부분 돈 벌러 한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도시에서 한 달 생활비는 3,000-5,000위안 정도이고 노동에 종사하면 한 달에 2,000위안을 벌기도 힘들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0,000위안 정도를 벌기 때문에 몇 년 만 고생하면 도시에 집을 살 수 있어서 많이 한국행을 한다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 등과의 교류가 빈번한 경우는 그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경제적 계층을 알기위해 현재의 주거상황으로 서민층, 중간

6) POE를 통해 조선족의 생활양식과 얼마나 근접하게 건설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으나 지도상에서 해당지역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할빈 조선족 노인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7) 할빈 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 노인회장은 할빈 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족과 경쟁하여 직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고 중국어를 잘하며, 중국인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고 하였다.

층, 부유층으로 분류하였으나 월 소득과 자산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주관적 계층을 질문하였다. 예비자료 수집결과 현재 40-90 m²의 자기 집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딸이나 아들이 사준 집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3,000-4,000 위안 정도인 경우는 서민층, 자녀들도 모두 집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5,000 위안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중간층,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와 운전사, 가정부를 두고 있는 경우는 부유층으로 보아 구술자로 선정하였다. 할빈 조선족 중에는 할빈이 한겨울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기후가 좋은 해남도 지역에 집을 사두고 겨울을 보내며, 홍콩을 왕래하기 쉬운 심천에 각기 아파트를 구입해 두고 계절적으로 이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부유층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지역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6가지 기준은 할빈의 도리구(道里區) 안승가(安升街) 85호에 소재한 조선민족예술관을 1차 방문(2010.5.25)하여 노인회 회장과 면담결과 할빈 지역 노인들의 주거경험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유형을 압축한 결과, 도출해 낸 것이다.

심층면접을 위해 선정된 구술 예정자에게 의사를 타진 한 후 2010년 5월28일부터 31일 까지 1인당 2-3시간⁸⁾ 동안 구술을 들었으며, 인터뷰 도중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서 유년시절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현재의 주택까지 주거경험을 수집하였다. 내용의 기록은 미리 작성한 대주제와 소주제에 조사자가 직접 받아 적는 방식이며, 평면도는 구술자가 직접 그리기도 하고 미리 수집한 할빈 지역 평면도를 보강하여 그리도록 유도하거나 조사자가 도와서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최종 제시된 평면은 일종의 개념도이다.

질문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태어나서부터 현재의 집에 살기까지 그것이 언제였는지 연도를 직접 말하기도 하고 자녀의 나이와 학년, 사건 등으로 교차 확인을 하였다. 특별히 주제를 정하여 질문하기 보다는 주거상황에 대한 구술이 계속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출생 후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구술한 내용을 보고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현재 할빈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중국의 근·현대를 살아온 구술자 5명의 주거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KS씨(2010년 5월28일 오전 9-11시 면접); 객관적 부유층,

8) 1950년대에 세워진 조선민족예술관에는 도서관, 민속박물관, 안중근의사기념관, 하얼빈조선족 백년사관이 있고, 할빈지역 1,500여명 노인회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어서 중국 조선족의 근현대 주거변화를 알기 위한 심층면접 생애구술자를 물색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였다. 할빈시내 거주자는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 많아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
9) 사전조사와 노인회 간부들과의 면담, 촬영, 개인 집 방문, 평면도 보안을 위한 추가 면담 등을 포함하면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이 소요되었다.

평북출신, 1936년생, 사범대 졸, 교사로 은퇴, 98년부터 초고층 아파트 17-8층에서 한족 아내와 이혼한 아들, 손녀와 거주. 한국과 19년 전부터 교류가 있다.

J씨(2010년 5월29일 오전 11-오후1시 면접); 객관적 중간층, 함북출신, 1941년생, 대졸, 중의학 연구자로 은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KY씨(2010년 5월31일 오전 9-11시 면접); 객관적 중간층, 충청도 출신, 1934년생, 전문학교졸업, 약제사로 은퇴, 2003년 층집을 사위가 딸 명의로 사주어 일본식과 한국식을 가미하여 내부 장식해 준 후 현재까지 부부거주. 북조선, 일본, 한국에 왕래가 있다.

L씨(2010년 5월28일 오후 1-3시 면접); 객관적 중상층, 남편 충청도, 본인 부모 전라도 출신, 1932년생, 소학교 졸, 가정주부, 2008년부터 큰아들이 큰손녀 명의로 사준 39층 초고층 아파트에 가정부와 둘이 거주.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P씨(2010년 5월29일 오전 9-11시 인터뷰); 객관적 서민층, 부모 경북출신, 러시아에서 1939년 출생, 조선사범졸, 사무원으로 은퇴, 1995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부부거주. 며느리와 아들은 왕래하지만 본인은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들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성과 한족 및 한국과의 교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주거경험이 상당히 다른 5유형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무의식에 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IV. 생애구술을 통해 본 중국 할빈 지역 조선족의 주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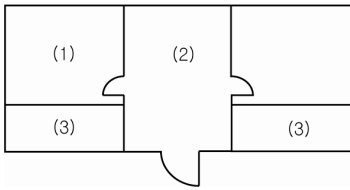
1. 구술자의 생애과정에 나타난 주거유형 경험

1) 평집 거주기

1936년 생 KS씨가 1950년 이전까지 경험한 평집은 3칸짜리 중국집<평면 1>이었다. 가운데 부엌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데 방 아래쪽에는 걸터앉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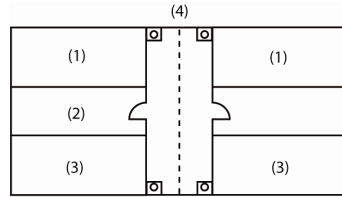
1950년에는 정부에서 3칸짜리 중국식 벽돌집<평면 2>의 1/2을 분배해 주어 2가구가 사용했는데 부엌은 같이 썼고, 지실을 들어가서 북강에는 형님네 가족이 살고 남강에는 모친과 구술자가 살았다. 보통 남강에서 어른이 거처¹⁰⁾하고 제사도 지내는데, 강은 조선집의 영향을 받아 4-5명이 세로로 누울

10) 한족의 중국집에 남강과 북강이 있을 경우 남강에 어른이 거처하는 것은 조선족과 동일하다. 한족 3칸집인 경우 서쪽은 남쪽에만 강을 만들어 호주부부가 거처하고, 동쪽은 남강과 북강을 만들고 어른들과 미혼자녀들이 거처(최금화, 2002)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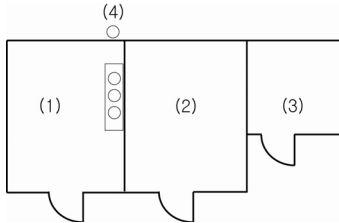
(1)바닥재: 흙
(2)부엌
(3)강

<평면 1> KS씨 거주 중국집(1950년 이전까지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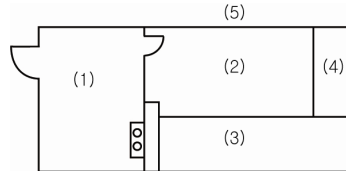
(1)북강,(2)지실
(3)남강,5~6명취침
(4)부엌-
2가구가 부엌을
같이 사용

<평면 2> KS씨 거주- 조선식 영향을 받은 중국집
(1950-1959년까지 거주)



(1)부엌
(2)정주칸,큰칸
(3)작은칸
(4)굴뚝

<평면 3> J씨 거주 조선집(1952년까지 거주)



(1)부엌 (2)지실
(3)강, 부엌쪽 벽은
페치카
(4)나무침대
(5)벽은 벽돌 1장

<평면 4> J씨 거주 러시아식 중국집 (1968-78년까지 거주)

정도로 넓었다. 연결시의 한족주택에서 방의 절반 정도를 칸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 것(임금화, 2004)과는 달리 지실(11)을 가운데로 하고 남북 칸이 있으나 조선집의 영향을 받아 칸이 좀 넓어진 형태(12)로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공간사용에서 가족 내의 위계와 성속(聖俗)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사용의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에는 러시아집을 직장에서 분배해 주었는데 주방과 마루방이 2개 였다.

1941년에 태어나 1977년까지 길림성에 주로 거주한 J씨는 처음부터 정주칸이 있고 온돌방을 벽으로 막은 초가집<평면 3>이면서 흙집인 조선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정주칸(13)(큰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작은 칸에서는 잠만 잤다. 조부모는 함북 태생이지만 부모님은 중국태생이었는데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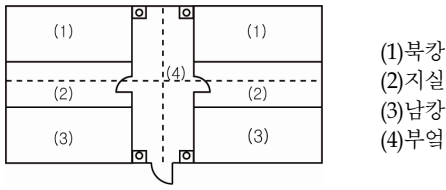
부모와 부모, 고모가 같이 살았다. 52년에는 아버지 직장에서 집을 배급받아 남강, 북강, 지실과 정지가 있는 중국집에서 2가구가 함께 살았다. 지실을 통해 들어가야 하고 사이에는 벽이 없으므로 분명 중국식이지만 세로로 누울 정도로 넓어 5-6명이 누울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집의 정주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58년도에 또 다른 중국집을 분배받아 살다가 68년 먼저 집은 반환하고 다시 직장에서 집을 분배 받았는데 페치카와 칸이 있는 러시아식 중국집<평면 4>이었다. J씨의 경험을 통해 당시 중국의 평집은 중국집과 조선집이 상호영향을 받거나 러시아식과 중국식이 상호 영향을 받은 집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4년에 충칭도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유랑생활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할머니와 형제 3, 모친까지 6명이 중국에 왔고, 장백산 숲 굽는 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KY씨는 <평면 5>와 같은 3칸짜리 중국집의 1/4에서 7식구가 생활하였다. 부엌은 같이 사용하고 남강 하나에서 세로로 7명이 같이 취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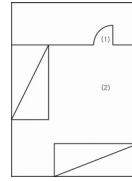
해방후까지도 유랑 생활은 계속되었고 55년에 결혼하면서 러시아인이 돌아가며 남긴 러시아집<평면 6>을 권리금 40위 안에 임대하여 생활하였다. 현관과 방 하나였으므로 부엌이 따로 없어 마루방에 둥근 난로를 놓고 취사를 하였으며, 1인용 침대 2개가 겨우 들어갔는데 1개는 시동생이 1개는 부부가 같이 취침을 하였다. 방하나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시동생은 당연히 데리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했고 1인용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였다.

57년도 러시아집<평면 7>은 3가구가 같이 살았고, 62년도 러시아집 지하실 개조, 63년도 러시아집, 81년도 까지도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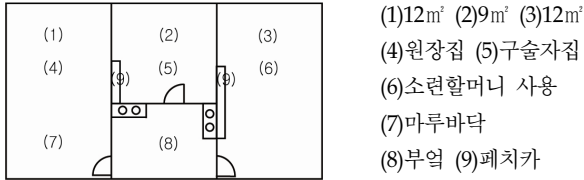
11) 지실은 부엌을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칸과 칸 사이의 실내통로를 지칭한다. <평면 1>은 걸터앉을 수 있는 1개의 칸만 있고 나머지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평면 2>의 (2)는 전형적인 지실이다.
12) 중국집의 일반적인 1개 칸[炕]의 크기는 보통 방의 1/3정도에 가설되어 있다. 서로 마주 보는 칸의 경우에는 아래위 1/3부분에 각각 가설되어 있고 남[南]강, 북[北]강이라고 부르고, 칸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뚝[地]라고 부른다(최금화, 2002)고 하였으나 구술자들은 지실, 남강, 북강이라고 지칭하였다.
13) J씨는 조선집의 부엌 옆 큰방을 정주칸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나 구술자의 표현에 의하면 벽으로 막은 큰 구들방으로서 함경도식의 부뚜막과 연결되어 개방된 공간은 아니다. 함경도식은 정지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연구(이영심 외 2003; 이영심 외, 2004; 이영심 외 2005; 임금화, 2004)와 정주칸(최금화, 2002)이라고 쓰는 연구가 있고, 정지(또는 정주)라 하여 부엌을 일컫는 용어로 쓰는 연구(이영심 외, 2003; 김종영, 2002)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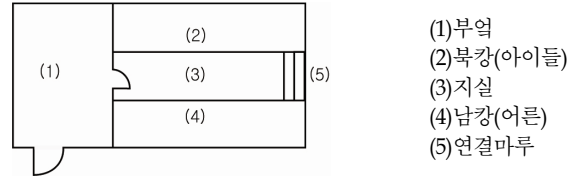
<평면 5> KY씨 거주 중국집(4가구가 사용)



<평면 6> KY씨 거주 러시아집(1955-56년 거주)



<평면 7> KY씨 거주 러시아집(57-60년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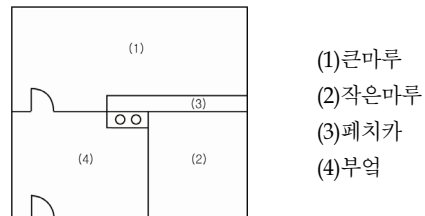
<평면 8> L씨 신축한 중국집(1955-60년 거주)

집의 부엌을 개조한 집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주거 여건도 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특별한 불만은 없었다고 하였다.

1932년에 흑룡강성 수릉현에서 태어난 L씨의 아버지는 전라도 출신이었고 1,000여호 중 제일 부자였다. 1953년 충청도 출신으로 산림관아 회계를 보던 남편을 사람하나보고 부모가 결혼을 시켰는데 시택은 같은 현 1,000여 호 중 제일 가난한 집이었다. 시택은 4가구가 같이 사는 3칸짜리 중국집의 1/4인 오른쪽 남강을 쓰고 있었는데, 중간에 막을 치고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취침을 하였다. 남편이 1955년 흑룡강성 철력현에 중국집<평면 8>을 지었는데 강은 세로가 2m로 넓고, 가로로도 길어서 10명이 누울 정도였고 남강과 북강을 연결하기 위해 지실 끝에 마루를 놓은 것이 특이했고 아이들은 북강, 어른은 남강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1961년에 할빈시 도리구에 중국집을 지을 때, 남편은 가난하지만 무모하기도 하고 배짱이 좋아서 이틀 만에 집을 완성하였는데 쌀이 귀해 쌀을 주면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쉬웠다고 하면서 남편의 가부장적 특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였다. 1971년에는 할빈시에 방3개짜리 조선집을 지어 20년을 거주하였다.

러시아전쟁을 피해 온 P씨는 1944년 흑룡강성 상지현에 조선집을 구해 살다가 할빈 러시아집에 살던 고모할머니댁에서 6개월 지낸후 1951-71년까지 러시아집<평면 9>에 거주하였다. 이 집은 페치카로 난방을 하였으며 2개의 마루방과 주방이 있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페치카는 러시아 전통 난방방식으로서 러시아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구술자들이 말하는 페치카는 조리를 할 수 있는 부뚜막과 연기가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열이 발산되는 사각형의 굴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영심 외, 2004; 이영심 외 2005)이다. 이 집은 혁명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준 집으로 약간의 집세를 내고 거주하였는데 이 동네가 헐리고 층집 동네로 바뀔 때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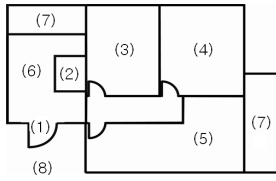


<평면 9> P씨가 분배 받은 러시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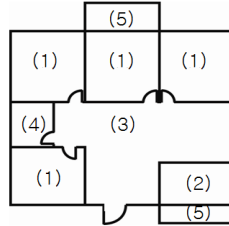
살았고 오븐이 있었고 집이 따뜻했으며 조리 등 부엌일을 하기 좋았다고 기억하였다.

평집이란 단층집 혹은 단층주택을 말하는데 구술자들이 경험한 평집 유형은 지실(地室)과 강이 있는 중국집과 정주칸과 구들이 있는 함경도식, 혹은 벽으로 아궁이와 구분한 구들방이 있는 조선집, 마루방과 페치카가 있는 러시아집으로 요약된다. 이들이 평집을 구분하는 방식은 지실이 있고 벽으로 막지 않은 강이 있으면 중국집이고 벽으로 막은 구들방이 있으면 조선집이라고 일관성 있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강은 한족(漢族)식 난방구조로서 방의 일부에만 구들을 놓은 것으로 높이 약 60-80cm, 폭이 180cm로서 크기는 대개 방의 1/3 내지 1/2 정도(김종영,2000:129)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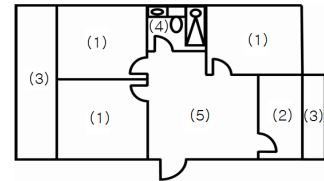
구술자들이 경험한 중국집은 모두 3칸 짜리로서 가운데 부엌을 두고 양쪽으로 지실이 있고 남강과 북강이 있어서 양쪽에 두개씩 4개의 강이 있다. 그 중에서 1개의 강을 1가구가 쓰고 부엌은 4가구가 같이 쓰기도 하고, 혹은 두 가구가 부엌은 같이 쓰고 강을 2개씩 사용하기도 하고, 조선족이면서 이러한 중국집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할빈지역에서 함경도식 정주칸이 있는 田 자형 조선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아 할빈지역의 혹독한 겨울을 나기에 중국집이 적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술자 중 L씨가 중국집과 조선집을 지은 경험이 있었는데 중국집과의 차이는 지실과 강이 있는지, 부엌의 아궁이에서



- A (1)현관 (2)변소
 (3)딸 (4)아들,조모
 (5)부부방 (6)주방
 (7)베란다 (8)복도
 46m²



- B (1)방 (2)주방
 (3)거실 (4)화장실
 (5)베란다
 90m²



- C (1)방 (2)주방
 (3)베란다 (4)화장실
 (5)거실
 95m²

<평면 10> J씨의 A, B, C 층집 평면

불을 때고 벽으로 막은 구들방이 있는지의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구술자들의 평집 거주기의 주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피호처로서의 주거의 의미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한 집에서 여러 가구가 거주하거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관습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주거의 의미 단계에 머문다.

둘째, 적어도 50년대까지는 북강보다 남강을 더 중시하고 이곳에서 어른이 거처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등의 공간 위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친척은 곧 확대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것은 당연시 하는 등 집은 확대된 가족을 위한 안식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층집 거주기

중국에는 1950년대부터도 층집이 건축되었으나 할빈은 1970년대 초부터 평집이 헐리고 층집이 많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6월25일 모택동 주석의 지시로 시작되었던 문화혁명기가 끝나고 1970년대 말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빠르게 증가되면서 오래된 주택지의 상당부분이 층집으로 개발되었다. 그전에는 직장에서 배급해 주는 집도 주로 러시아집이 많았으나 직장에서 직위에 따라 집을 분배해 주게 되어 있었으

므로 집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빨리 양적으로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층집이 많이 건축되었다. 분배해 주는 층집의 규모는 직위와 가족 수에 따르게 되는데 직장에서 분배를 받으면 매달 조금씩 아주 저렴한 비용을 내고 사용하다가 직장을 떠나면 반환하게 되어 있다. 1990년대 부터는 정부와 직장, 개인이 공동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가 1995년경부터 주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대부분 살던 집을 분납식으로 구매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구술자들은 얘기하였다.

구술자들의 층집 거주경험을 보면, KS씨는 러시아집에 거주하다가 1970년 처음 5층짜리 층집의 3층 42m²(14) 를 배급받았고, 이 집을 1995년 1,7000위안에 구입해 계속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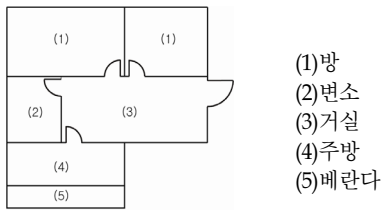
J씨는 1978년 남편의 직장에서 배급받은 5층짜리 층집의 5층 46m²에 거주하게 되는데 당시 집세는 매월 1위안 정도로 저렴하였다. 이 집(A)을 89년도에 8,000위안에 큰아들 이름으로 샀다가 8만 위안에 팔았다. 90년에는 일을 잘한다고 직장에서 포상으로 7층 층집의 5층 46 m²를 받게 되어 층집이 2채가 되었는데 13,000위안에 샀다가 둘째아들 이름으로 15만 위안에 팔았다. 그 사이 95년도에는 딸이 90 m² 7층 층집의 7층(B)을 사게 된다. 자녀들 결혼과 함께 아들과 딸이 필요에 따라 집을 바꾸어가며 살다가 2000년에 작은 아들과 딸은 대련으로 이사를 가고, 딸집을 큰아들에게 팔았고, 2005년도부터 지금 층집(C)에 두 부부만 살고 있다<평면 10>. 딸과 둘째 아들은 대련에서 살내가 2층으로 된 150m² 아파트에 잘 살고 있고, 큰아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합쳐서 큰 아파트를 장만하여 부모를 모시려고 하나 구술자가 아직은 건강해서 사양하고 있다.

KY씨는 1982년 들어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 층집을 분배 받게 되는데 3층집의 2층이었고, 방이 1개, 주방, 변소, 현관이



<사진 1> 1970-80년대 건축된 할빈시 7층 층집 외관>

14) 중국의 층집건축은 동등한 수준의 주택을 고르게 배분하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환이며, 1960년대까지는 주호당 36m², 1978년부터는 46m²으로 제한되었고, 1985년부터 50m²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최금화,2002:7-8)고 하였으나 구술자는 1970년에 42m²를 배급받았다고 하였다.



- (1)방
- (2)변소
- (3)거실
- (4)주방
- (5)베란다

<평면 11> KY씨가 거주하던 층집(1985년)

있었다. 1985년 이 집이 철거되면서 시정부에서 지은 7층 층집 <평면 11>의 6층 40㎡를 제공 받게 된다. 방이 2개였지만 딸이 결혼하여 함께 살았다. 사위가 일본유학을 하게 되어 딸네 부부는 그 이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다.

2003년 일본에서 성공하여 잘 살고 있는 딸이 와서 난방이 잘 안 되는 오래된 층집에 사는 친정 부모를 위해 당시 신축한 7층 층집의 4층 <평면 12>을 32만 위안에 사서 7만 위안을 들여 실내장식을 해 주었다. 일본식으로 화장실과 욕실을 구분하고, 한국식 현관을 가미하여 바닥차이를 두었다. 할빈은 시에서 일괄 11월부터 4월까지 중앙에서 난방을 해 주고 별이 잘 들어 추운 줄 모르고 산다. 방이 2개 인데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고, 너무나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하였다.

P씨는 1968년도에도 층집이 많이 건축되었으나 일본인이 지은 20가구용 2층집의 아래층 한칸 13㎡를 빌려 사용했는데 주방과 마루 한칸, 온돌 한칸으로 된 집이라고 하였다. 81년도에 직장에서 2칸 집을 분배해주어 살았는데 5층 층집의 5층이었다. 현관을 들어가면 주방과 침대를 쓰는 방 2개와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었다. 90년에 이 집을 반환하고, 91년에 현재 사는 7층집의 4층 40㎡를 직장에서 배급<평면 13> 받았는데 1995년경 조금씩 지불하면서 매입하였다. 당시 5,000위안을 들여 실내장식을 하였고 지금 팔면 30만 위안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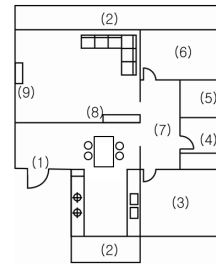
구술자들의 층집 거주기의 주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직장에서 배급받은 중국 층집의 규모는 40여 ㎡ 규모로 사회주의의 직장이 있는 모든 가구에 배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배급되었으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 집처럼 살 수 있었고 너도나도 같은 수준이어서 불만은 없었으나 피호처 정도의 의미에 머물고 있다.

둘째, 개혁개방정책으로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여 활용한 사람들의 층집거주기(70년, 78년)가 더 길고, 여전히 피호처로 인식한 경우와는 현재의 주거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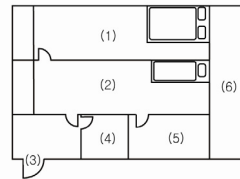
셋째, 사회주의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별 생각없이 순응하는 사람의 경우 층집거주기(81년, 82년)가 비교적 짧으며, 여전히 주거는 가족의 피호처로만 인식하고 있고 집이 열악한데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넷째, 주거조절과정에서 아들과 집 바꾸기, 아들 집을 사위가



- (1)현관 (2)베란다
- (3)안방 (4)일본식 욕조
- (5)변소 (6)서재
- (7)복도 (8)피아노
- (9)TV

<평면 12> KY씨의 온수바닥 난방 층집(2003년)



- (1)방 (2)거실
- (3)현관
- (4)샤워기, 변기, 세면기, 세탁기
- (5)주방 (6)베란다

<평면 13> P씨의 1991년 배급받은 층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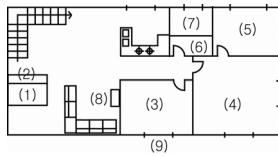
사들이기, 사위가 집을 사서 고쳐주기, 딸이 아들에게 집을 팔고 이주하기, 집을 작은 며느리주고 큰 아들이 사준 손녀명의 집에 거주하기 등 소유권 명의를 불문하고 직계자녀 가족과 집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주를 위해 주거조절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평집 거주기에는 친척을 포함하여 같이 거주함으로써 집을 가족과 친족의 피호처로 생각하는 경향이었으나, 층집 거주기에는 단위주택으로서의 층집이 같은 도시,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여 직계가족의 확대된 주거권역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고층 아파트 거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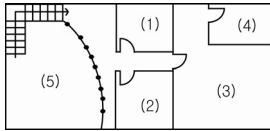
평집이 아닌 경우 과거에는 모두 층집으로 불리웠으나 현재는 아파트라고도 불리 운다. 편의상 7층까지를 층집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1990년대 이후 온수바닥 난방이 도입되고 거실이 등장(김종영,2002)하면서 아파트라는 명칭이 일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입주한 초고층 아파트 중에서도 라디에터를 이용하여 난방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3년 온수바닥 난방방식으로 거실이 있는 경우에도 층집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층수만으로 층집과 아파트라는 용어를 구분하고자한다.

구술자 중 현재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2명이다. KS씨는 대만 건축업자가 최초로 시도한 18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1998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7-8층에 2개층 250㎡<평면 14>로 내부구조가 되어 있고 라디에터로 난방을 한다. 2개의 엘리베이터를 8집이 사용하며, 스포츠센터, 활동실, 소파가 있는 로비, 경비가 있고, 당시 130만 위안을 주고 샀으며 60만 위안을 들여 실내장식을 하였다. 단점은 스티밍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것과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자리를



- (1)현관,턱이 없음 (2)옷장
- (3)보모방 (4)안방 (5)화장실
- (6)보모화장실 (7)세탁실
- (8)거실 (9)창문,아래는 라디에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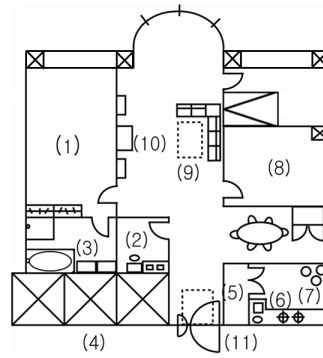
1층



- (1)서재 (2)손녀방
- (3)아들방 (4)화장실
- (5)VOID

2층

<평면 14> KS씨의 초고층 아파트 2개층 평면(1998년)



- (1)안방 (2)화장실,건조대
- (3)화장실,욕조,세탁기
- (4)엘리베이터 (5)창고
- (6)전자레인지,밥솥
- (7)장독 (8)가정부방
- (9)이불 (10)TV
- (11)2중현관문

<평면 15> L씨의 초고층아파트 평면(2008년)



<사진 2> L씨 39층 초고층아파트 외관



<사진 3> L씨 초고층아파트 2중현관문(나무색은 밖으로 흰색은 안으로 열린다)과 신발장

많이 차지하는 것, 그리고, 거실과 베란다¹⁵⁾ 사이에 라디에터가 있어 환하지 못한 점이라고 하였다. 실내장식을 한지 오래되어 2011년에 라디에터를 모두 떼어버리고 전기바닥난방으로 대대적인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L씨는 베이징에 사는 아들이 손녀딸 명의로 2008년 송화강가의 39층 최고급 아파트의 13층 200㎡<평면 15>를 200만 위안에 사서 30만 위안을 들여 실내장식을 해준 집에 가정부와 함께 살고 있다. 특징은 2중 현관문¹⁶⁾을 들어서자마자 곧 거실이 나오고 온수바닥 난방으로 실내가 더운데 부엌과 화장실은 타일로 시공하고 나머지 공간은 마루로 시공하였다. L씨는 거실의 소파 앞에 이불을 펴두고 있었으며, L씨가 사용하는 안방에는 침대가 없었다. 온수바닥 난방이 되는 연변지역 1999년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주의 연령이 주로 30-40대인데도 거실에 이불을 펴두고 있는 집이 많았다는 점(최금화,2002)과 비교해 볼 때 온수바닥 난방의 도입은 조선족의 좌식생활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면적에 비해 부엌도 좁고 아파트에 베란다가 없어 저장식품을 둘 곳이 없어서 냉장고를 부엌에 하나, 안방에 하나를 두고 사용한다. 그러나, 자식



<사진 4> L씨 초고층 아파트의 거실 창

이 성공하여 손녀이름으로 사서 살게 해 준 집이므로 너무나 만족한다고 하였다.

2008년 입주한 초고층 아파트도 2중 현관문이고, 현관에 바닥차가 없어 비닐위에 매트를 깔고 신을 신고 벗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사진 2, 3>.

구술자 중 2인의 초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KS씨는 계절적인 거주를 위해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추가 투자를 계획하며, 현재 아무런 불편은 없지만 오래되어 다시 실내장식을 해야 하겠다는 등 별 불만은 없지만 시대에 맞추어 주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주거의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

둘째, L씨는 성공한 큰아들이 손녀명의로 사준 집과 생활비 지원 등 때문에 아들의 성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15) 거실은 커팅[客廳] 이라고 칭하기도 하였고, 베란다는 랑타이(陽臺)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16) 추운지역이므로 2개의 문이 경첩으로 중첩되어 있고 하나는 밖으로 하나는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2개의 문 사이에 공간은 없다.

서 주거를 인식하고 있다.

L씨의 초고층 아파트는 부엌이 좁고, 거실 앞 뿐 만아니라 집 전체에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사진 4> 시원한 곳이 없다. 그래서 김치와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마땅히 둘 곳이 없다고 하다가도 아들이 사준 집에 대해 자랑하는 등 주거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족관계가 앞서는 혈족중심의 보수적인 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초고층 아파트의 장점인 공용 로비, 스포츠센터 등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서 가정부가 있고 매일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음식을 같이 해 먹고 논다고 하였다. L씨는 긍정적 주거결함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규범에 맞추어 주거적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구술자는 생애과정에서 중국집, 조선집, 러시아집과 상호 영향을 받은 여러 평집과 사회주의식으로 분배한 층집을 거쳤다. 개혁개방이후 상품성을 가미하여 자본주의적 상품성과 투자가치를 고려하여 공급한 초고층 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70-80년에 걸친 중국의 여러 주거유형을 경험하면서 조선식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점을 들어 구술자들은 공간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을 희망하였다.

첫째, 신을 신고 생활하는 중국인의 습성에 맞게 지어진 집이지만 조선인은 신을 벗고 신으며 수납할 수 있는 바닥차가 있는 현관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밖에서 주로 식사를 하거나 아침식사는 두유나 흰죽과 떡, 저녁은 볶음 채 한 두 가지로 식사하는 중국식 부엌은 3개를 모두 한식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조선족과 맞지 않으므로 부엌이 더 커야 한다.

셋째, 저장식품을 많이 먹고 저장식품을 많이 준비하는 한국인은 시원하게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70-80년대에 공급한 층집은 베란다라도 있었지만 초고층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고 시원한 곳이 없어 조선족의 생활과 맞지 않다. 할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흑한기가 있는 지역이므로 밖으로 개방적이지 않은 층집의 창문구조, 베란다가 없는 최신 아파트구조가 생활양식과 맞지 않아 불만이 좀 더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구술자의 주거의 경로에서 나타난 정체성과 생활양식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는 가족, 직업, 학력, 현 소득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Clapham, 2005), 객관적 계층, 할빈 이주 시기, 최초의 층집 거주시기, 현 주거 거주시작, 거주면적을 추가하였고, 러시아 지역 한인 주거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출신지역의 주거 형이 모방되고 있는 점(이영심 외, 2003)을 중시하여 출신지역도 추가하여 정체성 형성요소로 보았다. 해외동포의 주거특성이 현지의 주거 형과 어느 정도 혼합된 특성을 보이는 것(이영심 외 2003)으로 보아 할빈 유입연도도 정체성 구성요소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 요소를 근거로 구술자의 생애과정에서 주거경로를 거치면서 나타난 정체성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과 주관적 중국 동화 정도로 규정하였으며, 그로부터 가치관과 주거행동의 양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이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므로 생활양식 유형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할빈은 현재 송화강 북부 지역에 시청사를 옮기고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송화강가 도리 구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2006년 기준하여 현재 집값이 3배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KS씨와 J씨 뿐 이었다.

<표 1> 주거의 경로에서 나타난 정체성과 생활양식

구술자	정체성과 생활양식	정체성 형성 요소			주관적 계층 주관적 중국 동화정도	생활양식 가치관 주거행동
		부모출신지역 출생지역 할빈유입연도	학력 은퇴 전 직업	현 소득 객관적 계층		
KS씨 1936 생	평북 요녕성 농촌 1945	사범대 교사	- 부유층	1970 1998 250m ²	중상층 20%	자본주의 도전형
J씨 1941 생	함북 갈림성 농촌 1978	중의대 중의학 연구원	월 5,000위안 중간층	1978 1995 95m ²	중간층 40%	사회주의 실용형
KY씨 1934 생	충청도 장백산촌 1945	전문학교 약제사	월 4,500위안 중간층	1982 2003 90m ²	서민층 50%	사회주의 개방형
L씨 1932 생	전라도 흑룡강성농촌 1961	소학교 전업주부	월 4,000위안 중상층	1995 2008 200m ²	중간층 20%	혈족중심 보수형
P씨 1939 생	경북 러시아 1945	조선사범 사무원	월 3,408위안 서민층	1972 1981 40m ²	중간층 40%	사회주의 순응형

KS씨는 홍콩과 가까운 심천에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6층 빌딩을 지어놓고 호텔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으며, 74세인 현재에도 3개의 식당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자기는 중상층이며, 80% 조선족이고 20%가 동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여 자본주의적 도전형으로 명명하였다.

J씨는 배급받은 집, 포상 받은 집, 딸이 샀다가 큰아들에게 판 집, 이렇게 3개의 층집 중 2개를 팔아 규모가 큰 아파트를 사서 큰아들과 같이 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련의 딸과 작은 아들이 큰집과 2개의 자가용을 지니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점, 3채의 층집을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아들과 딸이 바뀌가면서 사용해 온 점에서 집을 매우 실용적인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기는 중간층이며, 사회주의가 장점이 많고 노력하면 포상이 주어진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기고 있어서 사회주의적 실용형으로 명명하였다.

KY씨는 어렵게 살았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젊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젊기 때문에 초라한 집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딸, 시동생, 계모와 전실 아들 등 가족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집을 개방하고, 북조선, 남한, 일본을 여러 차례 왕래 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성공한 딸 덕분에 한국식과 일본식을 가미하여 내부를 실내장식을 한 온수바닥 난방 층집에 살고 있고 자기는 서민층이라고 하였다. 친구도 한족 친구와 조선족 친구가 반반인데 한족친구의 장점은 마음이 넓고 절대로 남의 일에 관계하지 않는 점이며, 언제나 조선족이긴 하지만 중국이 조국이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해되고 공감되는 점이 많다고 하여 사회주의적 개방형으로 명명하였다.

L씨는 혈족중심주의로 여자는 남편에 의지해야하고 큰 아들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생애과정 구술 시에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당연시 하였으며, 소학교 출신으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김치와 된장을 포함한 모든 저장식품을 직접 담가 먹으며, 베이징에서 성공한 큰아들이 친구들과 놀라고 손녀딸 명의로 사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 하였고 돈은 벌어들였지만 자기를 중간층으로 여기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시원한 베란다가 없는 것에 불만을 얘기하다가도 지금 상태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큰아들이 장만해 준 집이라는 사실에 모든 불만은 묻혀버림을 알 수 있어서 혈족중심적 보수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주거수준이 낮은 P씨는 직장에서 배급해 준 40㎡의 집을 매입하여 소유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었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금도 은퇴 당시의 75-80% 연금이 나오고, 아프면 80%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만 내는 좋은 제도에 감사하고 있었고 주거형편이나 소득 면에서 서민층이지만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이 소수민족에게 잘 해준다고 감사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주의적 순응형으로 명명하였다.

V. 결론

할빈지역 조선족 5인의 생애구술을 통해 생애구술에서 나타난 주거유형 경험과 주거의 의미, 구술자의 정체성 형성요소와 생활양식을 통해 주거의 경로에서 나타난 주거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할빈지역 생애구술자는 직계가족의 생활 공간까지 주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생활수준과 주거까지 서로 교환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 자녀의 생활수준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포괄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들 딸 모두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으므로 나는 중간층', 실제로는 손녀명의 집에 살고 있으나 '성공한 큰아들이 좋은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서 나는 중간층'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1970-80년대 한국가족의 모습과 닮은 형태로서 현재 한국보다 주거의 의미 속에 가족 개념이 덜 분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1970년대 층집 보급이 일반화되기 까지 구술자들은 중국 집, 조선집, 러시아집 등의 평집을 경험하고 있다. 강과 지실이 있으면 중국집으로 부르고 아궁이와 구들 사이에 벽이 있으면 조선집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중국집을 짓기도 하는데 강을 세로로 2m 가까이 넓게 만들어 세로로 10여 명이 누워 잘 정도로 넓게 만드는 등 조선집의 특징이 현지화되어 중국집의 특성과 융합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3.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너도나도 똑 같은 조건이므로 불만을 가질 것도 없다는 식의 평등주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주거만족을 하는 상태로 주거적응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순응형의 경우는 열악한 주거수준에서도 만족하며 주거의 의미는 안식처와 피호처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4. 직장이 있으면 모두 집을 배급받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 일을 잘하면 포상을 받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여러 채의 집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을 지원하였고, 현재도 있는 집들을 잘 활용하여 재산증식 구상과 미래의 확대가족 생활터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발상이 유용했으며, 자본주의적 도전형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5. 구술자들은 모두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20-50% 정도는 동화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주택에 대해서는 현관의 바닥차이가 없는 점, 크기도 작고 수납이 적은 부엌과 저장을 위한 시원한 장소 부재, 실내와 베란다의 연결방식 등이 조선족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선호문제(1)가 아니라 중국의 식생활 습관상 부엌이 작아

도 되기 때문에 부엌을 작게 만드는 중국식 주거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적응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6. 할빈지역 조선족 주거유형 경험이 요녕성이나 길림성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는 출신지역이 경상도가 많고, 좀 더 추운지역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다른 지역보다 한국 말을 잘 못하여 다음세대는 한족과의 동화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할빈지역의 주거의 의미에 있어서 조선족으로서의 지속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의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사회구성주의적 인식론의 연장에 있는 경로접근(Clapham, 2009)은 유용하였으며, 할빈지역 조선족의 생애구술을 통해 주거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질적 연구방법은 숫자 속에 묻힌 개인이 아니라 개인 그 자체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정책에 근거해 볼 때 적극적으로 한국인의 주거문화의 지속성과 변화, 동화를 통해 주거의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할빈지역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 할빈시내는 중국 생활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직장생활자가 많아 고학력자가 많았으므로 흑룡강성 농촌지역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 시설설비의 사용, 생활문화의 동화과정 등 주거의 사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주거만족불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한다면, 할빈지역에 거주 적합성이 높은 주거단지 혹은 단위주호를 개발하거나 조선족의 주거 개조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김광호(2006). 중국 조선족 고층아파트 단위평면 공간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 연길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성우·이원석(2001). 중국 요녕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민가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11), 117-124.

김종영·김수인·김승제·박용환(1996).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1), 95-103.

김종영(2002). 중국 연변 조선족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2), 65-71.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이영심·조재순·이상해(2003).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주거에 관한 연구: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통한 1930년대 이전의 한인 주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7), 59-71.

이영심·조재순·이상해·정재국(2004).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8), 95-112.

이영심·조재순·이상해·정재국(2005).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난방방식에 관한 연구: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1), 145-165.

이영심·최정신(2007).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 제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7), 1-15.

이영심·최정신(2008).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거에서의 지속과 변화: 제한 고려인 이주노동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6(8), 55-72.

임금화(2004). 중국 연길시 근교 농촌마을의 공간구성과 주거 형태에 대한 연구-하룡촌 소하룡 마을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최금화(2002). 조선족과 한족의 주거공간사용방식 및 요구에 대한 비교연구: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집합주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형욱·양세화·전남일(2009a).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 주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45-60.

홍형욱·양세화·전남일(2009b).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II: 주거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55-172.

Arias, E. G. (ed)(1993).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Newcastle upon Tyne: Athenaem Press Ltd.

Clapham, D. (2005). *The Meaning of Housing*. Bristol: The Policy Press.

Clapham, D. (2009).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A Theory of Housing: Problems and Potential. *Housing Theory and Society*, 26(1), 1-9.

Morris, E. W. and Winter, M. (1975.2).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88.

1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관한 연구에서 부엌이 큰 것을 선호했던 점에 대해 러시아인에 비해 손님초대가 많음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이영심 외, 2008) 이는 할빈과는 다른 점이다.

- 접수일 : 2010년 07월 02일
- 심사일 : 2010년 08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11일